

 관계부처 합동		해명자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담당	통일부 신경제지도TF단 대외협력팀	팀장 조혜실, 사무관 이상고 (02-2100-2355, 2356)	
	국방부 북한정책과	과장 조용근, 소령 김세규 (02-748-6710, 6759)	
	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	과장 박형배, 사무관 민경조 (044-205-3501, 3511)	
	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	과장 정태경, 사무관 이광구 (044-203-2851, 2852)	
	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	과장 김대균, 서기관 장순석 (044-201-2531, 2537)	
	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	과장 유명수, 사무관 한상이 (044-201-7220, 7231)	

DMZ 평화의 길'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,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유입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임.

- 'DMZ 평화의길'이 개방되어, ASF 바이러스가 남쪽으로 유입되는 통로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기사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임.
- DMZ 내부 이동은 차량으로만 이루어지며, 파주지역에 ASF가 발생되기 이전부터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하여 철저한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었으며, 현재는 이용을 중단한 상황임.

1. 주요 보도내용

- 10. 7.(월)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「북 ASF 통로였다...파주·철원 'DMZ둘레길', 뚫려 있었다」 제하의 기사임.
 - 'DMZ 평화의 길'이 개방되어, DMZ 철책 안쪽*을 방문한 이들이나 차량에 ASF 바이러스가 묻었을 가능성이 있음.
 - * 개방된 3구간 중 고성을 제외한 파주·철원은 DMZ 내 출입
 - 'DMZ 평화의 길'이 바이러스가 남쪽으로 유입되는 통로역할을 했을 수 있음.

2.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

- 기 개방된 'DMZ 평화의 길'은 남측철책선 북쪽 DMZ 내에서는 도보 이동*이 아닌 기존의 포장된 군작전로를 차량으로만 이동하며,
 - * 도보이동은 북한 멧돼지가 통과할 수 없는 남측 철책선 이남에서만 일부이용 (파주시 1.4km(기존에 도보길로 운영중인 DMZ 생태탐방로), 철원 3.5km)
- ※ 조망장소인 철거 GP와 비상주 GP의 경우에는 경계 철책으로 인하여 멧돼지 출입 불가
- DMZ 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6월부터 통일대교 U자형 차량 소독기(파주), 통제초소(진출입 2개소) 소독장비(철원) 등을 설치해 ASF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,
 - * 버스 또는 차량에서 하차없이 소독지점을 통과하며 차량 소독 실시
- 이용자에 대해서도 현지해설사의 방역수칙* 교육 시행, 발판소독조 및 대인소독기 설치·운영, 방역준수사항 안내 입간판 설치 등 차단 방역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였음
 - *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, 신발소독 협조 등
- 따라서, 'DMZ 평화의 길' 이용자(차량)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·확산과의 관계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정부는 유입·전파경로에 대해 축산 차량, 멧돼지 등 야생조수류, 파리·모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역학조사를 실시 중임.
- 또한, 정부는 파주지역에서 ASF가 최초 발생한 이후,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하여 'DMZ 평화의 길' 모든 구간에 대하여 이용을 잠정 중단하고 있음.